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개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져 있던 여행 수요가 방학과 광복절 연휴를 계기로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정점은 8월 말 20만명 이내 수준에서 형성됐다가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많은 수준으로 집계되어, 휴가철 이동량과 기상악화 영향 등에 따라 확진자 수가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많은 수준이라는 통계(아워월드인데이터)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치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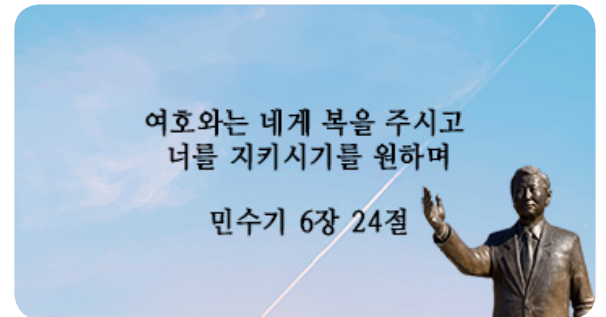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상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고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부는 2학기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은 이어진다. 지난 4일 교육부는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달 중하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기존 학사 운영방안을 유지했다.

대학에서는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한다. 다만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이 확진돼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 운영과 출석 대체과제 부여로 대응하도록 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 강의가 가능한 일상적이고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교 학우들과 교직원 여러분 모두의 자율방역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편집장 전효빈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학보사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saupress@naver.com

INDEX

- ▶ 입시요강 2-3면
- ▶ 초보 자취생을 위한 간편음식 소개 4면
- ▶ 테스형도 모르는 나의 이야기 5면
- ▶ 미식여행 일곱 번째 이야기, 한국의 절기[節氣]와 삼계탕[蔘鷄湯] 6면
- ▶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들 7면
- ▶ K-컬처 융복합 제작 실습 발표회 경호경찰행정학과 단합 8면
- ▶ 멀티미디어콘텐츠와 사진 동아리 '픽스' MT 시원하고 짜릿한 경험 '워터밤 609' 9면
- ▶ '친환경'과 '비건'은 유행인가요? 10면
- ▶ 국가근로장학생제도 11면
- ▶ 여름철 식중독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12면
- ▶ 모교와 함께한 추억을 돌아보며 13면
- ▶ 김민성의 미국기행(奇行)기 4 14면
- ▶ The Power of One - Newspaper Article 15면
- ▶ 만평 16면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가. 정원 내

초지역에서
신안산대학교까지 370m
셔틀버스로 3분!
도보로 5분!
어서와! 늦을 이유가 없지!



학부명	학과	모집 인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 전형 (실기)	특별전형					일반 전형 (실기)	특별전형				일반 전형 (복합)	특별전형	
				일반고	특성 화고	자기 추천자	지역 인재	특기자		일반고	특성 화고	자격증 소지자	고른 기회 (만학도)		특기자	고른 기회 (만학도)
기계전기안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5		10	5		4			8	4	3		1		
	전기공학전공	40		10	8	2	3			8	6	2		1		
	스마트패키징전공	30		8	5	2	4			5	3	2		1		
	소방안전관리전공	30		8	5	2	4			5	3	2		1		
	자동화시스템전공	30		8	6	2	3			5	3	2		1		
건축실내공간학부	건축과	35		10	5	2	4			7	3	3		1		
	실내디자인과 ■	30		8	5	2	4			5	3	2		1		
디자인미디어학부	시각디자인과	30		7	7	2	3			5	3	2		1		
	웹디자인과	30		7	4	2	2			5	3	1	5	1		
	영상콘텐츠과	35		7	5	2	4			6	3	2	5	1		
	웹툰출판미디어과	30		8	5	2	2			5	3		4	1		
경호경찰경영학부	경영학과 ■	35		9	7	2	3			6	5	2		1		
	경호경찰행정학과 ■	80		22	10	8	8			18	6	6		2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	60		8	5	2	4			5	3	2	29	1		1
	아동보육과	30		5	3	2	2			4	2	1	9	1		1
	바이오생명과학과	30		8	5	2	4			5	3	2		1		
반려동물학부	반려동물과	40		11	5	4	4			9	3	3		1		
	동물보건과	30		7	4	4	4			5	3	2		1		
호텔조리외식학부	호텔조리과 ■	60		10	5	5	4			5	3	2	24	1		1
	호텔제과제빵과	30		7	4	4	4			5	3	2		1		
	호텔외식카페창업과	30		8	5	2	4			5	3	2		1		
예술체육학부	실용 음악과	보컬	50	14					8					4		
		작곡		5				3					2			
		기악		4				2					2			
		컴퓨터음악		2				2								
		음향		1				1								
	실용무용과		40	18				4	13					5		
	연예매니지먼트과		30		8	5	2	4		5	3	2		1		
	스포츠지도과		60	10			4		30	6		4		1	5	
뷰티예술학부	헤어디자인전공		30		7	4	4	4		5	3	2		1		
	메이크업전공		30		7	4	4	4		5	3	2		1		
	토탈뷰티전공		30										29			1
합 계		1,050	54	208	126	69	90	34	35	146	80	55	105	39	5	4

-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구조개혁 및 교육부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홈페이지 참조
- 2) 복수지원가능 : 본 대학은 수시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과 · 전형 간 복수지원**은 제한없음(단, 수시1차 내 자기추천, 지역인재/수시2차 내 자격증, 고른기회전형은 각 1회씩만 지원가능)
- 3) 수시1차 지역인재 전형 : 안산, 시흥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가능
- 4) 수시2차, 정시 고른기회(만학도) 전형 : 만 25세 이상만 지원가능
- 5) 충원합격발표 제외 대상 : 복수지원한 동일학과에 합격한 자(합격포기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충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6) 각 모집전형별 미달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전형별 상호간 선발 및 충원함.
- 7) ■과는 2/3년제 전문학사 수료 후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 가능한 학과임.



▲ 신안산대학교 모집요강 보기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나. 정원 외

SAU도서관에서 책도
마음껏 읽고 학교 매점, 카페에서
쓸수 있는 **해피코인**과 **SAU포인트**를
다독상, 열공상, 독서상, 행운상 등으로
받을수 있지~!!



학부명	학과	모집 인원	정원외				
			농·어촌	기초차상위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외국인
기계전기안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5	1	1	1	1	1
	전기공학전공	5	1	1	1	1	1
	스마트패키징전공	5	1	1	1	1	1
	소방안전관리전공	5	1	1	1	1	1
	자동화시스템전공	5	1	1	1	1	1
건축실내공간학부	건축과	5	1	1	1	1	1
	실내디자인과 ■	5	1	1	1	1	1
디자인미디어학부	시각디자인과	5	1	1	1	1	1
	웹디자인과	5	1	1	1	1	1
	영상콘텐츠과	5	1	1	1	1	1
	웹툰출판미디어과	5	1	1	1	1	1
경호경찰경영학부	경영학과 ■	5	1	1	1	1	1
	경호경찰행정학과 ■	6	2	1	1	1	1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	6	2	1	1	1	1
	아동보육과	5	1	1	1	1	1
	바이오생명과학과	5	1	1	1	1	1
반려동물학부	반려동물과	5	1	1	1	1	1
	동물보건과	5	1	1	1	1	1
호텔조리외식학부	호텔조리과 ■	5	1	1	1	1	1
	호텔제과제빵과	5	1	1	1	1	1
	호텔외식카페창업과	5	1	1	1	1	1
예술체육학부	실용 음악과	보컬	5	1	1	1	1
		작곡					
		기악					
		컴퓨터음악					
	음향	음향	5	1	1	1	1
		실용무용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스포츠지도과					
뷰티예술학부	헤어디자인전공	5	1	1	1	1	1
	메이크업전공	5	1	1	1	1	1
	토탈뷰티전공	5	1	1	1	1	1
합 계		142	30	28	28	28	28

-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구조개혁 및 교육부 정원조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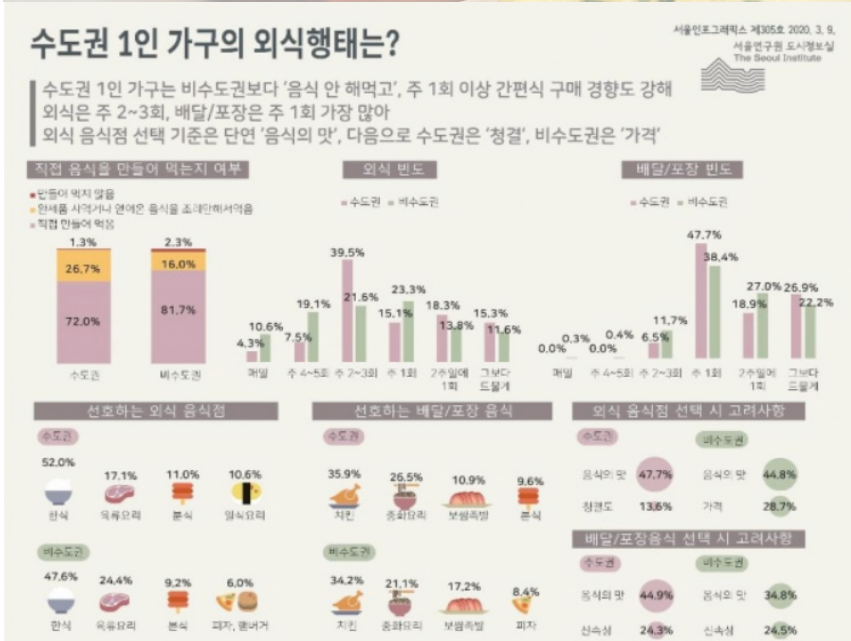
2) 복수지원가능 : 본 대학은 수시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과·전형 간 복수지원은 제한없음**(단, 수시1차 내 자기추천, 지역인재/수시2차 내 자격증, 고른기회전형은 각 1회씩만 지원가능)

3) 농·어촌, 기초차상위, 특성화고졸재직자,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외국인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는 P10에서 확인함.

4) 충원합격발표 제외 대상 : 복수지원한 동일학과에 합격한 자(합격포기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충원대상자에서 제외됨.

5) 각 모집전형별 미달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전형별 상호간 선발 및 충원함.

6) ■과는 2/3년제 전문학사 수료 후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 가능한 학과임.




(▲ 출처 :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05호)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휴교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던 지난 몇 년과 다르게 올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고, 그에 따라 자취를 시작한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많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먹거리이고 많은 초보 자취생들은 매 끼니를 차리기 어려워 끼니를 거르거나 배달 음식 같은 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왼쪽 통계에서 같이 수도권 1인 가구의 외식은 배달이 가장 높는데, 그 중에서도 맛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식 중 특히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다. 배달 음식은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칼로리가 높고, 미각을 사로잡기 위한 단맛과 짭짤의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배달 음식을 선호하여 배달 음식을 먹는 빈도가 잦아질수록 건강은 그만큼 쉽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가끔은 라면으로 때우거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건강은 더 쉽게 악화되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한번 요리할 때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하여 섭취하는 영양소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배달음식은 재료의 신선도나 위생적으로도 확인하기 어렵고 각종 첨가물 등으로 자극적인 맛에 우리 본래의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쉽다.

그렇기에 이번 면에서는 초보 자취생에게 추천하는 자취 반찬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초보 자취생에게 추천하는 반찬이란 누구에게나 만들기 쉽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장계란장과 어묵볶음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메뉴		간장 계란장			
					
재료	식초	계란	진간장	물	파
	소금	양파	설탕	다진 마늘	깨
조리 순서	<div>① 물은 계란이 잠길 만큼 넣고 식초 1 큰 술, 소금 1 큰 술을 넣고 끓인다.</div> <div>② 끓기 시작한 후 7분 후 찬물에서 계란을 깬다.</div> <div>③ 양파를 1개 썬다.</div> <div>④ 양념장은 진간장 1.5 큰 술, 설탕 1.5 큰 술, 물 1.5 큰 술을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고 다진 마늘 1 큰 술을 넣고 파를 썰어 넣어 만든다.</div> <div>⑤ 양념장에 깨를 뿌리고 썬 양파를 넣는다.</div> <div>⑥ 통에 계란이 양념장에 잠길 만큼 담가 하루 정도 숙성한다.</div>				

요리를 처음 하는 '요린이'들이 무작정 레시피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 구매해야 하는 식재료가 많거나, 초보자에게는 보기보다 복잡한 과정이 장애물이다. 또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해버린 채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는 자취생에게 큰 골칫거리이다. 이럴 땐 규칙적으로 '일주일 밀 플랜'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재료 쇼핑을 나가기 전에 일주일간 먹을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밀 플랜을 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이다.

1. 주 2회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 간단한 메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 등 목표를 세운다.
2. 냉장고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과감히 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양념과 재료는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3. 3~4인용 밀키트나 레시피를 활용하면, 요리하는 횟수를 주 2회 정도로 줄일 수 있다.
4. 바쁜 날을 대비해서 조리과정이 간단한 요거트, 그

레놀라 같은 메뉴를 준비한다.
밀 플랜은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양의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끼니를 거르거나 메뉴 선택하기 어려워서 대중 때우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마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것저것 카트에 담던 과거보다 식비와 장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인다는 점이다.

수습기자 정상협

테스형도 모르는 나의 이야기

이규현 목사
은혜의동산교회

요즘 나훈아라는 가수가 부른 “테스형”이란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만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 세상에 큰 울림을 주고 떠난 소크라테스를 소환해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대중 가요에 담기가 어려웠을 텐데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일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참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기둥에 적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신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 기둥에 적혀 있는 이 글귀를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겠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 글에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원래 그리스에서 신화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던 것인데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비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포클레스 당시에는 수 천 명의 아테네 시민들이 원형 극장에 모여서 이 비극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했을 거고 또 자기 자신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미워하는 남자아이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에서 오이디푸스가 맞닥뜨렸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어느 날 아주 무시무시한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라이오스 왕의 왕비와 결혼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신탁을 받은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자기 아들 오이디푸스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어린 왕자를 산속에 갖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죽을 줄 알았던 아기는 죽지 않고 고린토의 목동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를 너무 가엽게 여긴 목동은 이 아기를 아이가 없는 고린토의 왕에게 데려다주었고 고린토의 왕은 이 아이의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짓고 궁궐에서 키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밀을 알 턱이 없는 오이디푸스는 고린토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고린토의 왕과 왕비를 친 부모로 알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예언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고린토를 영원히 떠납니다. 불행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 거죠. 고린토를 떠난 오이디푸스는 길에서 마차를 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 일행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이에 자기의 원래 나라였던 테베에는 스팅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왕이었던 라이오스까지 죽어버리자 임시로 왕이 된 크레온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스팅크스를 퇴치하는 사람에게는 테베의 왕위를 물려주고 이오카스테 왕비를 아내로 주겠

다고 공언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오이디푸스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스팅크스를 물리치고 테베로 들어갔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공언한 대로 테베의 왕이 되었고 왕비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결혼한 거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길에서 죽인 그 사람들 중에 자기의 친아버지 라이오스가 있었고 자기가 결혼한 왕비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기 어머니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이 괴로운 현실 앞에서 고통하고 절규하다가 왕비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찔러 스스로 자기를 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알면 알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막장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이 비극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고민하는 어느 한쪽 면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패륜아 중의 패륜아인 오이디푸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아서 좋은 그림을 그리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성선설의 주장은 인간의 죄성을 잘 모르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죄성,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성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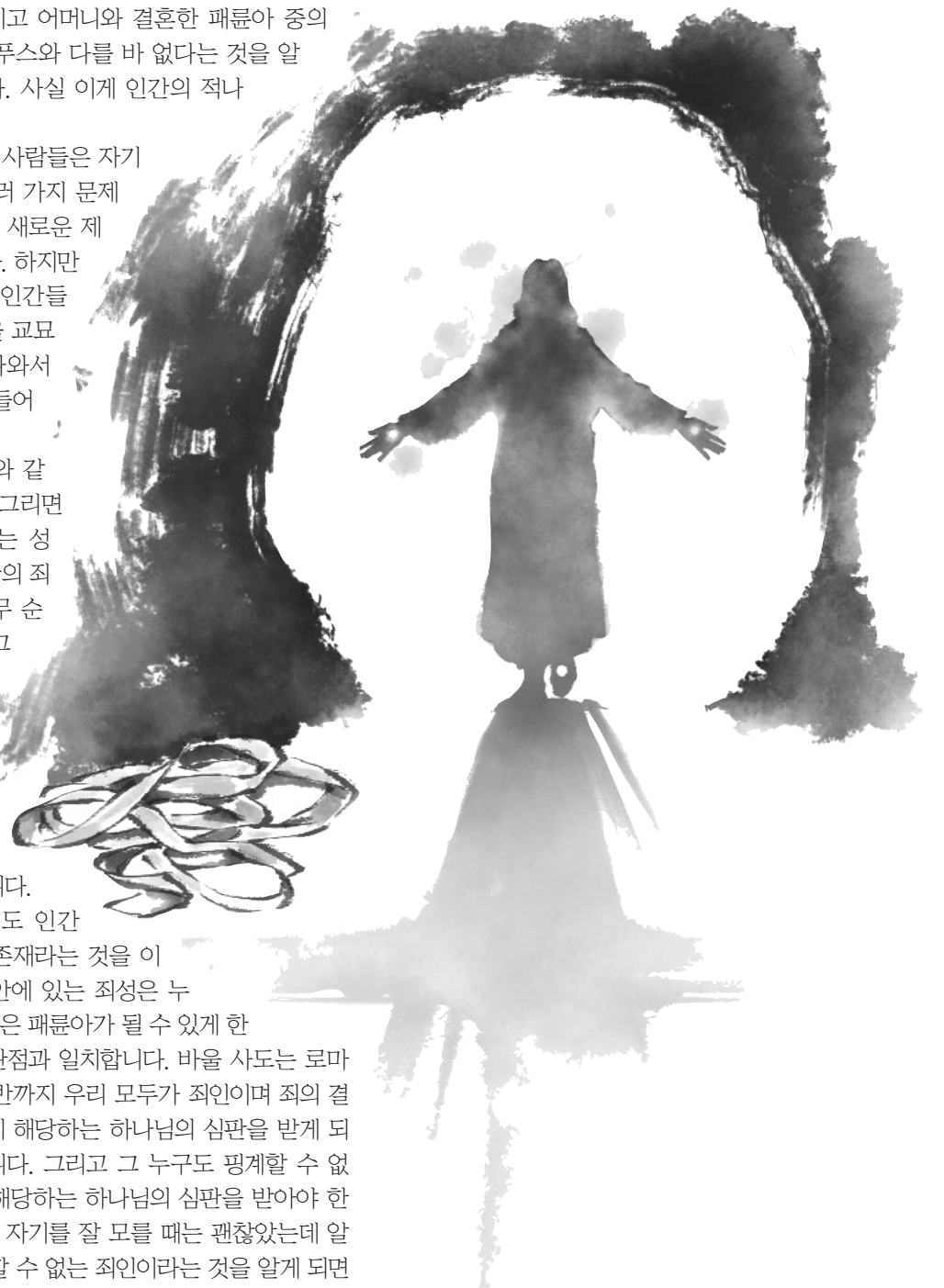
그런데 성경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누구나 오이디푸스 같은 패륜아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3장 중반까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잘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이디푸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에게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를 알면 알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신에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면 반대로 자기의 죄성만 보고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도 아직 제대로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는 절반의 진리만 알았던 불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 악한 죄인을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불행해지는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감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식[美食]이야기⑦



이진택

교수



호텔조리과

미식여행 일곱 번째 이야기,
한국의 절기[節氣]와 삼계탕[蔘鷄湯]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는 농경민(農耕民)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왔다. 이러한 농경(農耕)사회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水)이 필요하다.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농경민들이 풍년(豐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개수로[灌溉水路:물길]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개수로[灌溉水路]의 작업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한데 모아 행해야 하는 작업이었던 까닭에 유목생활을 하는 서양과 달리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문화형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으며 물길을 내지 못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지해서 경작하는 논을 천수답(天水畓)이라 부른다. 풍년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요건으로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冬), 사계절(四季)을 각기 나누어 일 년 24절기를 분류함으로써 계절별 농경의례(農耕儀禮)를 행해왔다. 농경의례(農耕儀禮)란 농사를 경작함에 있어 계절적 구분을 두고 일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조상숭배, 혹은 놀이 등의 제천행사이며 이러한 의례와 놀이에서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시식(時食)과 절식(節食)인 것이다. 시식(時食)이란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冬) 등 계절에 따라 나는 식품으로 계절 음식을 의미하며 절식(節食)이란 매달 속해 있는 명절(24절기)에 차려 먹는 음식 의미한다.

한국의 24절기(節氣)
봄(春) 입춘(立春) : 입춘대길(立春大吉), 절기상으로 봄이지만 추위가 많이 남아 있으며 봄의 ‘설’이라 부른다.[봄의 시작] 우수(雨水) : 눈이 녹아 비나 물이 된다.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비와 눈이 교차하여 내리는 절기이다.[비가 내리고 싸이 튼다] 경칩(驚蟄) : 연인(戀人)끼리 은행 씨를 주고받아 정을 나누며 나무의 움이 트기 시작한다.[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 춘분(春分) : 논밭의 애벌거리를 하고 봄의 중심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청명(淸明) : 벚꽃 소식이 들려오고 나무 심기에 적당하며 장 담그기를 한다.[봄 농사를 준비한다] 곡우(穀雨) : 봄비가 내리는 시기로 농사를 시작하고 여자들은 곡우 물(산드래, 자작나무 등)을 마신다.[농사비가 내린다]
여름(夏) 입하(立夏) : 여름 ‘설’이라 부르고 꽃의 계절이며 초목(草木)의 푸르름이 짙어진다. 햇 차(茶)가 나온다.[여름이 시작된다] 소만(小滿) : 만물이 자라 가득 찬다. 가을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한다.[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 망종(芒種) : 곡식의 씨앗(벼, 보리)을 뿌리는 시기이며 모내기가 한창으로 농사일이 가장 바쁘다. 하지(夏至) : 본격적인 여름으로 낮이 가장 길다. 햇감자가 나오고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 소서(小暑) : 논두렁 밭두렁 풀 베어 퇴비를 만든다. 장마가 시작되며 민어가 제맛이다.[여름 더위가 시작된다] 대서(大暑) : 반딧불이 반짝이고 염소 풀이 녹는다. 더위가 매우 심하다.
가을(秋) 입추(立秋) : 가을의 길목으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가을 ‘설’이라 부른다.[가을의 시작] 처서(處暑) : 더위가 멈추고 논바가 익기 시작하며 가을 파종을 시작한다.[일교차가 커진다] 백로(白露) : 이슬이 맺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 태풍의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추분(秋分) : 밤낮의 길이가 같고 농작물의 추수가 한창이다. 여름 채소와 산나물을 말한다.[밤이 길어진다] 한로(寒露) : 단풍이 시작되고 국화꽃이 피며, 기러기가 찾아오고 미꾸라지가 살피며 만곡을 수확한다.[찬이슬이 맺힌다] 상강(霜降) :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을건기로 바뀐다. 차가운 기운으로 단풍이 떨어진다.
겨울(冬) 입동(立冬) : 겨울 ‘설’이라 부르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김장을 시작한다.[겨울의 시작] 소설(小雪) : 살얼음이 얼고 날씨가 차갑다. 대설(大雪) : 많은 눈이 내린다. 동지(冬至) : 이른 겨울, 밤이 가장 길다. 작은설이라 부르고 팔죽을 쑤어 먹는다. 소한(小寒) : 추위가 가성을 부리는 절기로 한국은 대한(大寒)보다 춥다. 대한(大寒) : 추위가 심하지만 새로운 계절을 재촉한다.

24절기[節氣]의 기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절기는 매월 4~8일과 19~23일 사이에 찾아온다. 태양의 황경이 0° 인 날을 ‘춘분’이라 하였으며 15° 간격으로 24절기를 나누었다. 따라서 춘분에서 90° 인 날이 ‘하

Standard Recipe		
Menu Name	전복삼계탕[蔘鷄湯]	Menu Section
		찜
Story telling : 삼계탕은 봄에 부화한 약병아리를 키워 복날에 냉(冷)해진 속을 보호하기 위해 보양식으로 많이 섭취한다. 진한 육수에 갖은 약재를 넣어 만들어 탈진하기 쉬운 여름날의 으뜸 보양식이다.		Cooking Equipment
		냄비, 팬, 찜기, 핀셋, 트레이
 		Time50 Minute
삼계탕	삼계선	Cooking Point
익힘에 주의		
Ingredient 영계 1마리(400g), 수삼 1뿌리, 생울 3개, 통마늘 3개, 건대추 2개, 표고버섯 1장, 전복 2마리, 불린 찹쌀3 큰술, 불린 녹두 1큰술 ◆고명 : 대파 채 or 산삼 배양근 ◆육수 : 닭뼈 100g, 닭발 50g, 양파 1개, 대파 50g, 황기 20g, 녹각 10g, 감초 5g, 염나무 10g		
Method 1. 닭발, 닭뼈를 손질하여 황기, 녹각, 감초, 염나무, 통마늘, 양파, 대파를 넣고 뽕안 국물이 우러나도록 2시간 이상 끓인다. 2. 영계를 잘 손질하여 밤, 대추, 은행, 마늘, 수삼, 불린 찹쌀, 불린 녹두를 넣고, 닭다리를 으드려 모양을 잡는다. (꼬리 쪽의 지방 덩어리는 반드시 제거한다) 3. 2의 닭을 베보자기에 싰 다음 준비된 찜통에 1시간 정도 푹 찌 후 푹배기에 1의 육수와 찌 닭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데쳐둔 전복과 대파 채를 올려 완성한다. (닭을 육수에 처음부터 삶는 것보다 베보자기에 싸서 찌 후 삶으면 육질이 더욱 부드럽고 육즙의 풍미가 좋아진다.)		
Cooking Advice 1. 삼계탕의 고명으로는 견과류(호박씨, 해바라기씨)나 산삼 배양근을 많이 이용하거나 지단, 건 대추채, 은행 등을 이용하거나 형태를 달리하여 익힌 닭의 배를 갈라 냄비에 육수를 이용해 녹두와 찹쌀을 섞은 죽과 함께 내기도 한다. 2. 녹두의 경우 겉질에 영양성분이 많으므로 가능한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지 가 되며 180° 인 날이 ‘추분’, 270° 인 날이 ‘동지’가 된다. 또한 춘분에서 하지 사이를 봄, 하지에서 추분 사이를 여름, 추분에서 동지 사이를 가을, 동지에서 춘분 사이를 겨울이라 하여 4계절을 구분한다. 본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력의 기원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한 이집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양의 달력 또한 해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정확한 날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농사를 짓기 위한 날씨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기에 양력의 요소를 도입하여 태음력의 단점을 보완한 24절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24절기는 중국의 베이징과 화북 지방의 기후에 맞춘 것으로 우리의 실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종시대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된다.

삼복(三伏)
복날(伏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인 삼복(三伏)을 의미하며 절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이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진·한나라 이후 삼복을 숭상하여 한때 조정에서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으며, 민간에서도 더운 여름에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육류나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농가월령가 8월령을 보면 머느리가 친정집에 다녀갈 때 개장국을 삶아가지고 간다는 노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보양식의 음식을 즐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반려견이라 표현될 정도로 가족과도 같은 개고기를 식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식용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표현된 개고기의 의미는 순수하게 시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서 개고기의 식용 여부를 이해하기로 하자. 예로부터 서양은 밀가루를 이용한 빵의 문화와 유목생활에 의한 양고기나 쇠고기 따위의 육식의 식문화화를 형성해 왔으며 서양인들이 유목 생활을 함에 있어 개는 매우 유용한 동물로서 서양인들에게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단에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콩장류가 발달하긴 하였으나 단백질 섭취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쇠고기의 경우 또한 농경우(農耕牛)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식용으



▲ <https://blog.naver.com/gilbert514/222496935994>[그림발췌]

팔월이라 한 가을이니 백로 추분 절기로나, 복두성 자루 돌아 서쪽하늘 가리키니 서늘한 아침 저녁 가을이 완연하다

————— (중략) —————
머느리 말미 받아 친정집 다녀갈 때 개 잡아 삶아 내고 떡상자와 술병이라 초록 장옷 반물치마 차려 입고 다시 보니 여름 동안 지친 얼굴 회복이 되었느냐
————— 정학유, 농가월령가 팔월령—————

로서의 사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고기의 식용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으며 개고기와 함께 서민 음식으로 각광받은 음식이 바로 ‘삼계탕[蔘鷄湯]’이다. 복날(伏날) 음식의 대명사인 삼계탕은 닭이 귀하던 시절에는 ‘계삼탕[鷄蔘湯]’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삼계탕을 복날(伏날)에 먹는 이유는 날씨가 뜨겁고 기력이 쇠하게 되면 우리는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때 심각한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더운 여름날 차가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신체 내·외부의 온도차가 급격해져 건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으로 인해 냉(冷)해진 속을 보(補)하기 위해서는 열성(熱性)의 성질을 가진 인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바로 이러한 신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계탕은 봄철에 부화한 약병아리(생후 4~5개월: 무게 400~500g)에 인삼과 갖은 약재를 넣고 푹 고은 음식으로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쇠약해지기 쉬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인 것이다.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들

코로나19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 운영 재개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세부 계통(하위) 변이로서 면역 회피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 (BA. 2.75)가 14일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재유행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천에 거주 중인 60대 확진자로부터 BA.2.75가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이날 BA.2.75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감염 가능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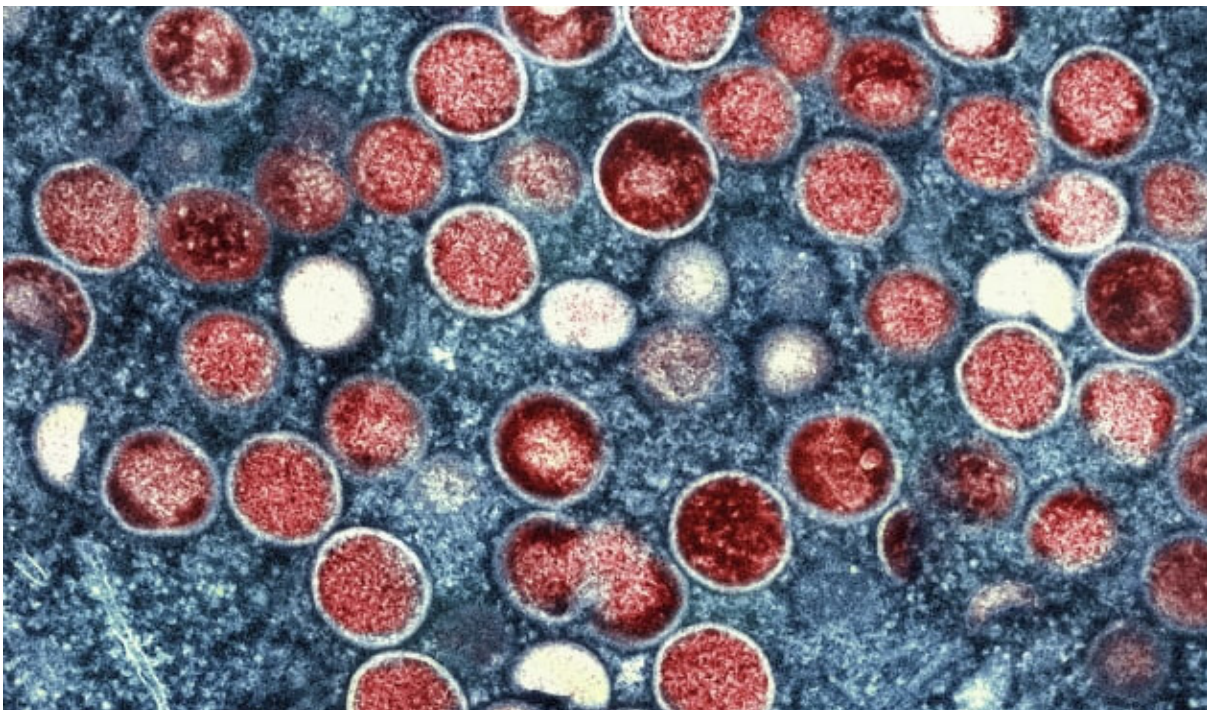
간 중 해외 여행력은 없다. 이는 이미 지역 사회에 전파돼 있는 BA.2.75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동거인 1명, 지역사회 접촉자 3명 등 총 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BA.2.75는 BA.2(스텔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로 인도에서 5월 26일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

나다 등 10여 개국에서 발견되며 가파르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류 중 BA.2.75점유율은 6월 20일 7.9%에서 일주일만인 같은 달 27일 51.35%로 상승하며 우세 종이 됐다. 이날까지 BA.2.75 발생 누적 건수는 인도 90건, 영국 11건, 미국 5건 등 총 119건 확인됐다. BA.2.75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와 BA.4보다 면역 회피 특성과 감염 전파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하위 변이들보다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많아 바이러스가 더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하는 것이 면역 회피 특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 수는 BA.2의 경우 28개인데, BA.2.75는 이보다 8개 더 많은 36개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도 확산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BA.5가 우세 종으로 돼가면서 재유행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질이 더 센 변이인 BA.2.75까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8월 중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달 들어 BA.5, BA.2.75 등 하위 변이의 확산과 각국 방역 규제 완화, 면역 감소 등이 맞물리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600여 개의 선별진료소 외에 약 1만 개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검사가 가능하다”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유행 상황에 맞게 필요시 언제든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가동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출처 : 연합뉴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희소 감염병 ‘원숭이두창’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1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성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숭이두창은 1958년 처음 발견됐다.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이 실험실 원숭이에서 발견돼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70년 콩고에서는 최초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후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 특히 콩고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됐다. 다소 증세가 경미한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약 1%, 중증 진행 확률이 높은 ‘콩고분지형’은 10% 정도다.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원숭이두창은 서아프리카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긴다. 병변이 얼굴과 생식기 등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통상 수 주 내에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에서 생산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네오스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도입 인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20일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

진네오스는 두창과 원숭이두창 모두 효과성이 입증돼 FDA(미국)와 EMA(유럽)에서 승인받았다. 3세대 두창 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유전자 변형을 통해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부작용 위험을 줄였다.

3세대 백신은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은 확진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의료진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다. 정부는 17개 시·도별 집중보건소를 1곳씩 지정해 접종 준비를 마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정기자 김우준

K-컬처 융복합 제작 실습 발표회



▲ 좌:남성한 교수님/우:강옥순 교수님

지난 6월15일(수) 목양관 에버그린홀에서 실용댄스학과 공연음악과가 ‘K-컬처 융복합 제작 실습 발표회’를 했다. 먼저 공연음악과 밴드 뮤니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뒤이어 남성한 교수님과 강옥순 교수님이 공연음악과 밴드소개 및 개회사를, 이해영 부총장님이 환영사를 이해영 부총장님이 환영사를 강성락 총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다.



▲ 빅뱅-last dance

축사가 끝난 후 첫 번째 공연으로 음악과 정유진, 장민석, 박서진, 김은비, 이수아 댄스과 박수연, 안예진, 김서은 학생이 ‘YG Entertainment의 빅뱅-last dance’를 선보였다. 두 번째 공연으로 음악과 홍준기 학생과 댄스과 고은서, 김민주, 김예린, 이나경 학생이 ‘YG Entertainment의 위너-Really Really’를, 세 번째 공연

으로 음악과 나정은, 박소담 댄스과 문채원, 김지원, 김해인, 최은비 학생이 ‘YG Entertainment의 블랙핑크-love sick girl’을, 네 번째 공연으로는 음악과 김수민, 한채연, 김학준, 문선우 댄스과 이지우, 임애령, 이민서, 고찬열, 김세훈 학생이 ‘SM Entertainment의 NCT 127-체리밤’을 공연하였다. 뒤이어 다섯 번



▲ 커튼콜

째 공연으로 음악과 조민경, 문준혁, 김준수, 허찬, 최재혁 댄스과 허다인, 유지민, 유서영, 박재열 학생이 ‘BIGHIT MUSIC의 BTS-쩔어’, 여섯 번째 공연으로 ‘SM Entertainment의 Got the beat-Step back’을 음악과 이예은, 김채원, 선아영, 안수진 댄스과의 변정원, 이정윤, 신인아, 장은하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이어 댄스과

학생 전원이 축하공연을 하고 축하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로 출연자 전원이 나와 공연이 마무리가 되었다. 한학기 동안 배운 것을 아낌없이 보여준 실용댄스학과 공연음악과 학생들의 훌륭한 실력에 감탄했다. 다음 SAU-EXPO에서의 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부편집장 김성진

경호경찰행정학과 단합을 위한 체육 대회를 가시다



▲ 체육 대회 경기를 마친 경호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단체 사진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는 학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학과 체육 대회를 지난 5월 31일 화요일 본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 대회는 코로나로 2년간 중지되어 있었던 학과의 전통적인 행사이다. 체육 대회는 경호경찰행정학과 학생회 회장 채윤기 학생의 준비로 이루어졌으며, 1·2학년 및 심화과정생인 3·4학년생까지 약 19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학과 체육 대회는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다인 다각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하여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승부를 떠나 이번 체육 대회를 통해서 COVID-19로 주춤했던 학과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화합 및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어울려 즐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손경환 학과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체

육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지금까지 답답했던 것을 모두 풀고 해소할 수 있는 행사였기를 바라며, 경호경찰행정학과는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특성에 맞게 학생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줌에 감사의 뜻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날은 학생뿐만 아니라 손경환, 김환목, 이상진, 김동련, 강경수, 류효주 교수님

등 모든 교수님들께서 동참하였다. 학생회의 주최로 꾸며진 체육 대회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함께 어울려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며,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무더운 여름날의 학업 스트레스 또한 날려버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정기자 전예원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사진 동아리‘찍스’ MT를 떠나다



▲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사진 동아리 찍스 단체 사진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사진 동아리인 찍스(찍스)에서는 1학기를 마친 지난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대부바다향 기테마파크로 MT를 다녀왔다. 22명의 학생들과 안동찬 교수님, 박혜연 교수님, 조교, 총 25명의 인원이 지난 1학기를 마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 찍스는 사진 동아리답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도착해 학생들 개인 사진 촬영과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찍스는 숙소에서 도착한 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탁구와 족구 등의 스포츠 종목을 즐기고 동아리 선배들 간의 돈독한 친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자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진 뒤, 참참참, 인물 이름 맞추기, 미니 의자 탑 쌓기, 스무고개 등 다양한 팀별 게임이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사진 동아리답게 바다향기테마파크와 여행을 보내며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 컨테스트도 진행되었다. 이번 MT로 찍스 동아리 학생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타파하고 1학기를 마치고 떠난 여행인 만큼 더욱 같은 시간 속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

정기자 전예원

신안산대학교만의 시원하고 짜릿한 경험-『워터밤 609』



▲ 제1회 SAU 워터밤 609 포스터 (출처 : 제28대 총학생회)

신안산대학교 28대 총학생회는 제1회 SUMMER NIGHT WATER BOMB FESTIVAL 『워터밤 609』(이하 워터밤 609) 행사가 개최하였다. 워터밤(Water Bomb)이란 말 그대로 물 폭탄이라는 뜻으로, 참가자들이 물총으로 서로를 겨냥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각종 특수 장비를 설치해 곳곳에서 물을 맞으며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여름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다. 이번 워터밤 609는 본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EDM 페스티벌이었던 만큼 신안산대학교 구성원 및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짜릿하고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워터밤 609는 28대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주최하였고, 공연음악과의 김원준 교수님이 직접 총괄 감독을 맡아 학생들과 교수님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고 화합의 장을 선보인 대학 행사가 되어 준비 과정에서부터 본교 학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워터밤 609는 강남 클럽 신을 주름잡는 다수의 유명 DJ들의 신나는 디제잉과 화려한 퍼포먼스, 시원한 물놀이를 결합한 또 하나의 축제로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안산대학교만의 짜릿한 클럽 파티로 진행되었다. 이번 파티를 시작으로 28대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신안산대학교에서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주최할 것이라는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9일 목요일 17시부터 21시까지 신안산대학교 공학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야외 희망의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DJ 라인업 또한 유명한 신인 DJ VINE의 퍼포먼스를 알리는 시작으로 뒤를 이어 DJ R2, DJ ARI, S2 등 유명 DJ들까지 4시간 동안 쉬지 않는 논스톱 파티로 진행되었으며, 힙합과 EDM 등 신나는 클럽 음악과 함께 워터밤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신안산대학교 총장님의 축하 (출처 : 제28대 총학생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행사였던 만큼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 특별히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본인들의 전공을 살려 참석자들 모두의 안전과 비상사태 예방에 큰 기여를 해주었으며, 이로써 즐겁고 안전한 대학 축제로서의 파티를 진행할 수 있었다.



▲ DJ ARI의 디제잉 퍼포먼스 (출처 : 제28대 총학생회)



▲ DJ R2의 디제잉 퍼포먼스 (출처 : 제28대 총학생회)

28대 총학생회는 더 나아가 완벽한 SAU 축제로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간 즐기지 못했던 축제를 이번 제1회 SAU 워터밤 609의 화려한 음악과 뜨거웠던 무대를 통해 잊지 못할 신안산대학교만의 짜릿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

정기자 전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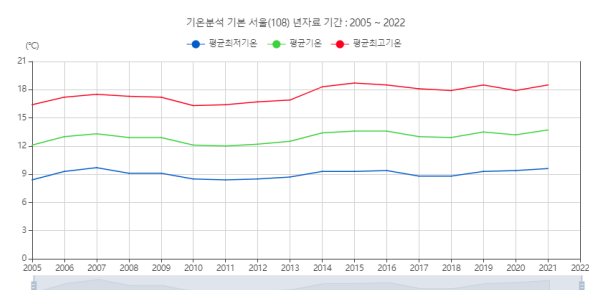


▲ 워터밤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출처 : 제28대 총학생회)



‘친환경’과 ‘비건’은 유행인가요?

지난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은 잇따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이번 여름, 폭염과 호우가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파생된 지구상의 환경문제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온도와 이상기후에 대해 언급하고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환경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더구나 대중들의 관심 또한 빠르게 식는다. 환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속에서도 희망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혹은 환경 보호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행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다. 그 중심엔 ‘친환경’ 그리고 ‘비건’이란 키워드가 있다. 왜 비건 투어라는 것이 생겼는지, 왜 리사이클링 제품을 트렌드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건’이 환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와 비거니즘이 무엇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을지 말이다.



▲ 자료 - 기상청

요즘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인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 가방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유명하던 것이 이제는 K-유행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반에는 외관상 지저분해 보여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으나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의 단점인 지저분함을 겉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간접적으로 친환경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참여는 대중들에게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되고 이는 구매를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많은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바꾼다거나 매장에서는 다화용컵을 사용하고 포장의 경우에만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친환경, 재활용뿐만 아니라 ‘비건’이란 키워드 또한 현 시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다. 비건은 환경과 어떤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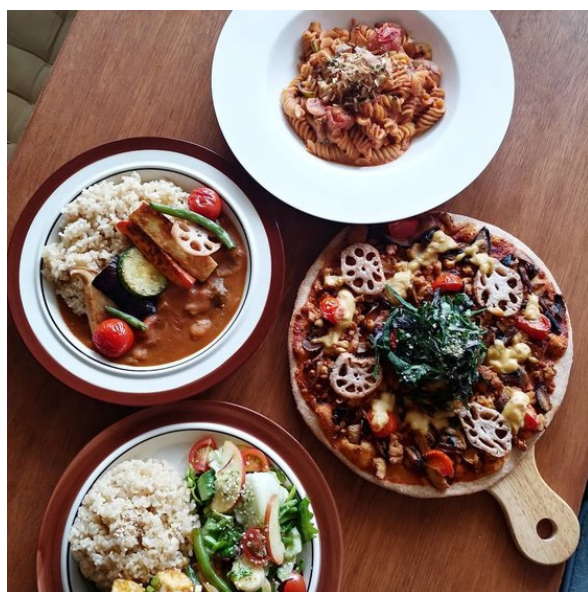
계가 있을까?

음식에 경우, 공장식 축산은 엄청난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UN에서 말하기를, 가축을 기르는 것과 낙농업은 모든 인공온실의 14.5%의 가스배출을 기록한다. 또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차, 기차, 선박 등의 가스배출과 맞먹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비건 채식을 한다면 세계 식량 관련 배출량은 2050년까지 70%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학술 저널인 PNA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식량과 기후에 관한 2016년 보고서)



▲ 프라이탁 제작 현장 - 출처 : 프라이탁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목적으로 비건 음식에 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가며 비건 빵집, 식당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 동물성 식품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음식만 만드는 가게 사진- 어라운드 그린

2022년 8월 13일에는 제주에서 비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제주지역의 13개의 단체가 모인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가 주최·주관한다. 또한 주체 측에서는 비건 페스티벌 사전 신청자를 위한 선물 또한 비건 제품으로 준비했다.

그 외에도 ‘K-비건’이라며 비건 사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글로벌 대체육이나 대체 유제품 같은 비건 제품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단순히 비건 빵집 투어를 다니며 SNS에 글을 올리는 젊은 세대의 유행이나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대기업의 전략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로 비건은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한가지의 새로운 삶의 선택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거니즘은 음식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답은 ‘아니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유행하는 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쉽게 비건을 발견할 수 있다.

비건 화장품, 비건 리더 등 많은 분야에서도 등장하는데 비건 리더는 말 그대로 가죽을 사용하는 것인데 요즘 패션업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불리는 비건 리더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MZ세대가 주목하는 친환경 가치 소비에도 걸맞다. 그렇지만 모두가 비건이라 해서 환경에 친화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말로 코르크나 다시마, 파인애플 껍질로 비건 리더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제품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외에도 일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진짜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통틀어서 ‘비건 리더’로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므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건 리더의 치명적인 단점은 내구성인데, 보관을 잘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죽에 비하면 1-2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하는 것은 결국 또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 친환경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생산·판매업계가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당장의 내가 누릴 것, 즐길 것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의 내가 사는 곳, 내가 먹을 것이, 당장의 환경과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했고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또는 나의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쩌면 이런 사고가 변화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지속될 때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비거니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뿐더러 그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이 엄청난 성과이자 변화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점차 ‘비건’, ‘친환경’과 함께 윤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에서 타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수습기자 박서진

국가장학금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따라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차와 2차 신청을 하여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5만 3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 제로(0) 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선발요건에 따라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 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생 생활을 돕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관된 근로기관 등에서 일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받게된다. 교육부와 한국국가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다양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 하여 우수한 지역기업 등 교외 근로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23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학생들에게 양질의 근로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과 취업역량 제고를 돕는 장학금 제도이다. 올해 신청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9시부터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었고,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3일 목요일 9시부터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18시까지 1학기 신청 가능하였다. 2학기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2학기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9시부터 6월 23일 목요일 18시에 마감이며 2차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에 충족한 학생이어야 한다.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택)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 긴급가계관련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중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명 가능
 -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지원자격(▲출처:한국장학재단)

지원유형으로는 학교 안에서 일하는 교내근로 장학생이 있고, 학교 밖에서 일하는 교외근로 장학생이 있기에 본인 적성에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면 된다.

○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지원유형(▲출처: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금 신청을 할 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을 엄수 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금액은 교내근로 9,160원, 교외 근로 11,150원이다.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학기 중 20시간, 근로장학생 중 방학 기간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대 40시간 근로할 수 있다. 학기당

520시간을 근무 원칙으로 하되 예외 사항으로는 장애 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 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시 부정근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근로란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를 말하며 대리 근로는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인 대신 근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대체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와 같은 허위 근로를 하였을 시 허위근로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대리 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과 장학금 환수가 되며 대체근로는 확정일로부터 1년의 근로 참여 제한이 될 수 있기에 이 사항들을 유의하며 근로해야 한다. 국가 근로장학생 선발결과는 추후 각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본교 학생들을 지난 7월 직접 만나 근로장학생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멀티미디어과 전효빈 학생, 건축과 민성연 학생과 건축과 2학년 우에녹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근로장학생을 해온 기간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전효빈 학생 : 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을 신청한 이유는 학교에서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2. 우에녹 학생 : 지금 한 학기 동안 시설과에서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고, 근로장학생 신청한 이유는 그동안 대학 생활을 하며 공강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아까운 공강 시간을 가까운 학교 안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메리트를 느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제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면 나중에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터러 관련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3. 민성연 학생 : 저는 지난 학기 여름방학부터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게 된 건 조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들이 느끼는 근로장학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1. 전효빈 학생 : 근로장학생의 장단점은 위에 말한 대로 시간 내에서만 일하면 길게 일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졸업 후 학교에 취직을 생각한다면 미리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학기 중에 학업과 일의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A2. 우에녹 학생 : 장점은 출퇴근의 거리와 공강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그 외로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부서에 일을 실무로 경험도 하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시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단점은 근래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시급이 최소 11,000원부터가 시작인데 근로장학생은 나라에서 책정한 최저시급입니다. 시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3. 민성연 학생 :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중간중간 생기는 공강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학교이다 보니 학교 갈 때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단점입니다.

Q. 마지막으로 근로장학생을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A1. 전효빈 학생 : 근로장학생은 한 번쯤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장학생 신청한 후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올릴 때 지원해야 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2. 우에녹 학생 : “아는 게 돈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알찬 대학 생활, 경력도 쌓고 아까운 공강 시간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 근로장학생 꼭 신청하세요!

A3. 민성연 학생 : 근로장학생은 여러 장점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아르바이트 대신 근로장학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수습기자 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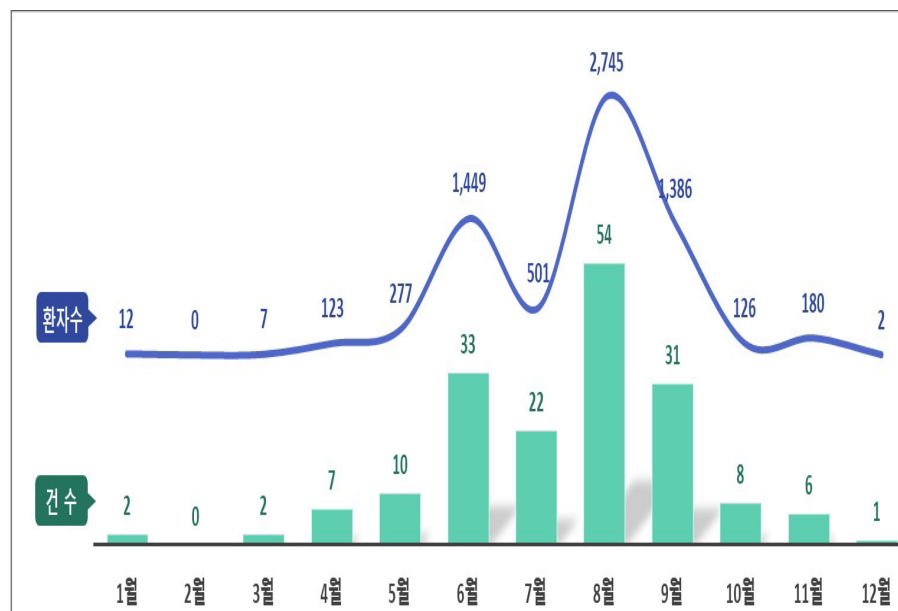
여름철 식중독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날씨가 덥고 습해지며 식중독에 관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냉면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냉면에 들어가 있는 달걀지단이 문제가 되었는데 달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이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 남성이 숨지기 전 김해시는 신고를 받고 해당 냉면집을 찾아갔었지만 당시 검체 채취는 하지 않고 청결상태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식중독으로 확인되기까지 4일 동안 식당을 다녀간 손님은 천여 명, 최초 신고가 접수된 날에도 200여 명이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식당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사건은 왜 발생하고 또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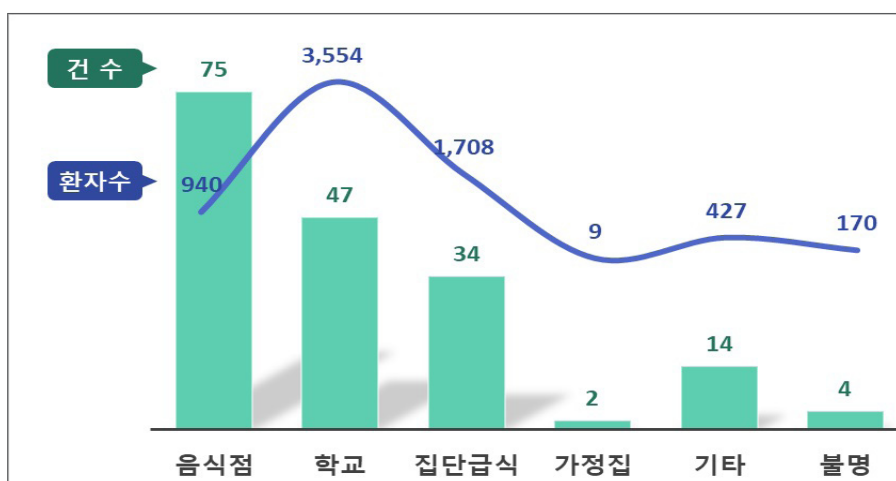
우선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이다. 고온, 다습한 계절이므로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살펴보면 병원성 대장균(109건, 22%), 캄필로박터 제주니(49건, 10%), 살모넬라(52건, 11%), 노로바이러스(36건, 7%) 등이 여름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식중독균들로 확인되었다. 그중 병원성 대장균은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장 질환, 방광염, 뇌 수막염, 패혈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이러한 질환들은 특히 영유아들



▲ 병원성대장균 월별 발생 추이 그래프-출처 : 식약처

에게서 주로 일어나지만, 병원균의 혈청형 및 독소에 따라서는 건강한 성인에게도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의해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다. 특히 분변, 축산 폐수 등에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면 채소가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 제주니는 선진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설사병 원인균이다. 발열, 권태감이 설사 1~2일 전부터 발현할 수 있고, 설사, 혈변, 복통, 권태감,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된다. 캄필로박터 제주니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고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

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다. 살모넬라는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증상 등이 발현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수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된다. 살모넬라균 또한 오염된 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에 접촉하여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임상적 증상은 묽은 설사 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와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데 사람의 분변이나 구강 경로로 감염된다. 이러한 식중독균들 중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시설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발생 현황-출처 : 식약처

지난 5년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시설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75건, 43%)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환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5,262명, 7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식중독균들 중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 대장균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병원성 대장균은 동물 대장 내에 흔하게 존재하고 그 분뇨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채소 또한 오염되거나 도축과정에서 고기에 이행하여 우리에게 온다. 이런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식약처에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알려준다.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2.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3. 물 끓여서 마시기
4.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5.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하기
6.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 보관하기이다.

많은 질병들은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손을 통해 입이나 코로 감염된다. 따라서 손을 제대로 씻으면 감염질환의 6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식중독 예방을 생활화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습기자 권유진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확인 하셨나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 씻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2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3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4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5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 보관온도 지키기**
6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출처 : 식약처

모교와 함께한 추억을 돌아보며



고경은
(멀티미디어컨텐츠과
13학번 졸업생)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 느낀 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심정은 어찌면 허무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10대가 끝났다는 생각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살다시피 했던 생활이 이 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랬었다. 나의 꿈은 작가였다.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좋아했으나 결말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늘 초장만 꼬적거리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또 잠깐만 흥미를 느끼다 말고 '멀티미디어컨텐츠'라는 분야에 대한 배움이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을지 많이 고민했다.

다행히 전공은 내 적성에 매우 잘 맞았고, 학교에 다니며 재미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과제를 통해 창의성을 키울 기회가 생겼다. 사진, 영상, 스토리텔링, 디자인, 사무 등 다양한 과목이 서로 경쟁하듯 미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은 뭐든 쉽게 질려버리는 나에게서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하나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새로운 것이, 그것에 익숙해져 갈 때에는 또다시 새로운 과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석의 시간을 통해 공모전에 출마하여 수상할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다. 학교에 다니며 수상한 공모전은 총 2개로, 하나는 내 멘토 교수님인 김은영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도전하게 된 '창조관광 공모전' 은상(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학과장님인 안동찬 교수님의 추천으로 출마한 '전국 ICT 창의성 경진대회' 동상(팀)이었다. 특히 '전국 ICT 창의성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경험은 아마 내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값진 이벤트였을 수도 있다. 이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둔 덕분에 교내에서 개최하는 '광덕 학술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학술대회를 위해 논문을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안동찬 교수님 덕분에 학술대회에서도 보람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학술대회를 경험한 덕분에 지금 석사 학위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학교 학생 신분으로의 2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 교수님들 옆에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느덧 훌쩍 가벼진 시간은 어느새 졸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아쉬움이 커져 가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게도 학과 조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조교로 발탁되어 감사하게도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나는 학과의 조교가 되면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 뭐라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의 조교를 '학생 신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스승'으로서의 교수님과 '직장 상사'로서의 교수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그분의 제자였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부하직원 1'이 된 것이다.

학과와 조교로 활동하는 것은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학적 관리라는 것이 입력을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졸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래전에 만들 어졌던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는 해당 과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일이 추적하여 지금의 대체 과목을 찾아 시스템에 입력해 주어야 했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특성상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취업률'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전년도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재 어느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졸업생에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야 했다. 당시 80여 명의 졸업생에 대한 데이터를 매주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해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그들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까지 집요하게 연락해야만 했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친하게 어울리던 두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 모든 연락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통계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데이터를 쫓아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때문에 각 교수님들 탭에 취업 데이터를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수식을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이후로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한시름을 놓았었다. 다만, 엑셀 화면 자체에서의 점선·실선 사용의 혼용과 같은 문제 때문에 학과장님께 크게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데이터가 정확하든 점선이니 실선이니, 셀의 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이니 하는 것을 신경 쓰시는 학과장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2년을 목표로 하던 조교 생활을 그 절반밖에 못 미치는 1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조교를 그만둔 이후로는 2개월 정도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할까 하고도 생각하였는데 아무래도 배움을 이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두 번째 직장으로도 학교를 고르게 되었다. 그렇게 서울의 모 대학 대학원 교학팀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나는 일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느꼈다. 교학팀의 부장님은 아주 천사 같으셨고, 사무실 내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나 역시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일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아금아금 다른 사람들의 일을 더 맡아서 처리했다. 조교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학과장님의 섬세함과 부족한 인력에 밀려야 하는 일이 너무나 버거웠는데 이미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나보다 경력이 길었던 선생님보다도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다. 업무에 효율성이 높았기에 상대적으로 러프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고, 남은 시간에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배움을 이어 나가려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교학팀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소속의 교수님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어 계약직으로 시작했던 2년이 끝난 후 교내의 타 부서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해당 부서는 교내에 있지만 교내의 소속은 아닌 곳으로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었다. 비록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전했다. 이동하게 된 부서는 교내 기관과 교외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상사가 이중으로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나 역시 교내 소속 연구원의 '연구원' 이자 교외 소속 부서의 '간사'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원의 원장님은 정부기관 차관 출신이었고, 교외 기관의 사무처장님은 교수님이었으며, 교수님 위에는 바로 학교의 총장님이 계시는 구조였다. 내가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총장님한테 올라가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구조였던 것이다. 꼼꼼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당시의 나는 일에 파문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고 몰두하다 순식간에 일 중독자가 되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위치에 직장이 있었음에도 8시쯤 출근해서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새벽 2시~3시까지 업무를 이어 나갈 정도로 말이다. 이때 처리했던 업무는 하나의 업체나 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기획, 예산, 회계, 디자인, 홍보, 사무 등 1년 사이에 내 손으로 만들고 진행한 크고 작은 행사가 50여 개에 달했다. 학술회이나 세미나, 축제, 공모전 등을 추진해 보았으며, 유튜브와 함께 사회 실험 영상을 만들고, 내가 일하는 분야의 특정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축하는 등 창의적인 일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내 상사로 계신 교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예 믿고 맡기시는 편이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많은 신경을 써 주셨다. 첫 직장이 학과 조교였기에 처음 모신 상사 역시 '교수님' 이셔서 교수님 마음에 흡족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교로 일했을 때의 경험 덕분에 상사와의 마찰을 잘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그다음은 바라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 도전하기는 두려웠으며, 창작의 고통보다는 체계적인 기획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학원 전공은 '예술경영'으로 잡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컨텐츠 전문 학사'와 '경영학 학사' 두 개의 졸업장과 함께 도전한 대학원 입문은 참 만족스러웠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멀티과에서 배웠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기에 대학원 입시를 위해 준비한 포트폴리오 또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채울 수 있었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도래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행사가 크게 성공하며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에는 장관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업무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회의 기구의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와 직장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달라 나라는 사람에게 특정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였다. 함께 일하는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졸업논문을 현재 내가 진행하는 업무와 같은 분야와 연계를 시켜볼 것을 권하셨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이 분야에서의 경험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조금 달랐다. 때문에 이 일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까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논문학기에 들어서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비로소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소망하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한 발을 내디뎠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을 위해 도전하겠노라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졸업논문의 방향을 '소설'로 잡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산업과 생리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종이책 시장 규모를 따라잡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웹 소설'을 논문의 주제로 잡았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시각으로 해당 주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유형 그다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다. 논문을 쓰는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 약 5개월간 읽은 책이 300권을 넘길 정도였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의 밀도가 새삼스레 와닿기도 했다.

이제 논문이 완료되어 졸업식만을 앞두고 있고, 덕분에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되었다. 내 논문이 책의 형태로 제작되어 손에 들어오니 그동안 감사했던 은사님들을 모두 찾아뵙고 싶어져서 모교의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가르침을 주시던 박성태 교수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너무나 소중히 사용할 기술을 알려주신 심윤희 교수님, 수업을 통해 공모전에 도전하게 해주시고 성장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김은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에는 유머러스함으로, 조교 시절에는 엄격하지만 값진 배움을 얻게 해주신 안동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라고 한다. 지금 처해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집중하면 어느덧 훌쩍 자라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위해 도전한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무언가를 위해 혹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기를 바란다.



▲ 2013년~2022년의 ID카드와 명함

김민성의 미국 기행(奇行)기

김민성
본교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2년 졸업생

죽기 전에 봐야 한다는 그랜드캐년



7월 31일 난 친구의 자인들과 함께 이 지역 로컬들만 간다는 레드락캐년을 방문했다. 이곳은 산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쉽게 트레킹을 할 장소는 아니었다. 이름처럼 빨간색의 돌이 쌓여 있는 신기한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큰 자연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다.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고지에 올라가 아래를 보니 숨이 탁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라스베가스 도심지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다.

8월 1일 드디어 기대하던 캐년 투어를 떠났다. 사실 이것 또한 막연히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이틀 전 한국인 가이드의 투자를 찾아 예약했다. 새벽부터 나와 엠지엠 호텔에서 투자를 시작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간만에 한국인들과 말하니 너무 편했다. 아쉽게도 내 포래의 분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는 길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캐년까지는 자그마치 5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국에서 5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을 이동하고도 남는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5시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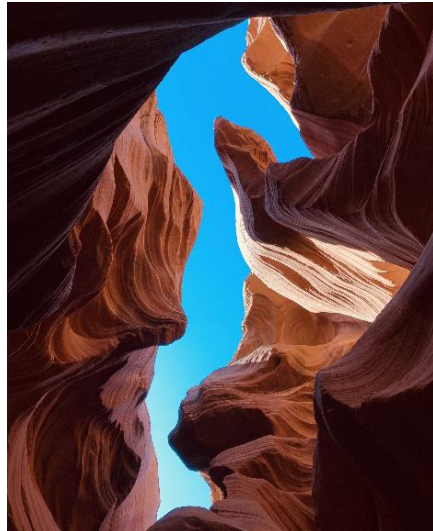


는 가까운 거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미국의 위엄에 감탄했다. 처음엔 자이언캐년으로 향했다. 정말 남자답고 거대했다. 다음으로 브라이스캐년을 갔다. 브라이스캐년은 가장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여긴 다른 캐년과는 다르게 협곡 사이로 가벼운 트레킹이 가능했다. 또 두 시간가량 이동하여 홀스 슈 밴드로 이동하였다. 홀스 슈 밴드는 이틀과 같이 말발굽 모양의 협곡이었다. 신기하게 협곡 사이로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멋있는 광경을 관람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위태위태하게 고정된 펜스를 넘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난 순간 저 아저씨 미쳤나?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주변인의 만류로 다시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 또한 안심했다. 이렇게 세 곳을 돌고 나니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고 투어는 캐러반 숙소로 향했다. 일행이 없던 나는 가이드 아저씨와 같은 캐러반으로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좋았다. 깔끔한 침대와 화장실, 샤워실 너무 만족스러웠다. 저녁 식사 또한 너무 만족스러웠다. 삼겹살과 함께 같이 투어를 온 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투어는 새벽부터 기상하여 빠르게 라면을 먹고 파월 호수로 출발하였다.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다. 마침 해까지 뜨고 있던 중이라 하늘 또한 맑고 화창하며, 한 번에 볼 수 없는 끝없는 별판이 이어졌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생각했다. 가이드님의 멋진 사진까지 정말 완벽했다. 완벽했던 일출을 보고 가장 기대했던 엔텔롭캐년으로 향했다. 이곳은 항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 이곳을 관리하는 인디언 가이드만이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린 인디언 가이드를 따라 땅속으로 들어갔다. 계단이 정말 위험해 보였고, 안을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계속

무너져 내려 무섭긴 했지만, 너무 멋져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인디언 가이드는 다양한 사진 포인트와 카메라의 필터를 이용하여 더 아름답게 이곳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이곳에서 인생샷을 찍었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엔텔롭캐년 투어를 마치고 다시 빠르게 이동하여 드디어 마지막 캐년이자 죽기 전 봐야 한다고 알려진 명소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에 도착하였다. 가는 길엔 미국 남자들의 꿈이라는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를 탄 멋진 형님들이 줄지어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를 몰며 그랜드캐년으로 향했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인증샷을 위해 잠시 멈춰 팻말 앞에서 사진을 찍고 라판포인트에 도착했다. 간단히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 또 빠르게 차를 몰아 그랜드캐년

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멈췄다. 그랜드캐년을 보자마자 왜 여기가 죽기 전에 봐야 하는 곳인지를 체감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 층층이 나뉜 협곡, 끝이 안 보이는 자연까지, 정말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진 찍을 정신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가기 전 여길 꼭 사진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몇 주 전, 한국인 대학생이 떨어져 사망했다고 하여 난 최대한 조심하며, 사진을 찍고 기념품 가게에서 그랜드캐년 자석을 구매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는 길에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루트 66을 지나며 근처의 기프트샵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고 라스베가스로 돌아왔다. 캐년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라스베가스 즐기기 (3)

캐년감성에 빠져 잠시 잊고 있었던 라스베가스에 도착 후 난 다시 호텔 투어에 나섰다. 약 2주 전 생겼던 리조트 월드 호텔로 이동하여 호텔 안에 일렬로 이어진 수많은 롤스로이스를 보며 한 대에 5억씩 잡아도 이게 몇억인가 하며 여소리 나는 롤스로이스를 지나 신기한 LED 조명으로 동그란 형태의

수족관 같은 구조물을 지나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갔다. 이 호텔은 사실 크게 특이한 것이 없었는데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이곳은 화장실이 자랑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다. 멋진 네온사인을 따라 들어가면 알록달록한 조명과 미려볼 빛을 반사하는 타일 등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 뒀다. 정말 멋진 화장실을 본 후 서커스 서커스라는 오락실과 같은 곳으로 갔다. 이곳은 많은 오락기와 서커스 공연 등의 콘텐츠가 있었고, 유흥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어린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곳인 것 같았다. 난 가볍게 이곳을 돌고 관광객들의 성지인 라스베가스 사인에 도착했다. 서울의 아이 서울 유치원 로컬들은 절대

안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나 같은 관광객들은 이런 곳을 마다할 순 없다. 많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었고, 나 또한 기다리다 사진을 찍고 바로 숙소에 도착했다. 이날은 여러 명이 집에 모여 햄버거를 먹으며 영화를 보았다. 고맙게도 한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며 또 즐거운 라스베가스에서의 하루를 보냈다.

라스베가스 즐기기 (4)

마침 내 생일이 겹쳐 친구가 사 온 풍선을 들고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창피했지만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될 것이다. 이제 사실상 마지막 라스베가스의 일정으로 M&M 스토어와 코카콜라 스토어를 방문했다.

스트립에 있는 곳으로 다양한 굿즈 상품들을 보고 구매할 수 있다. 난 친구와 함께 M&M 스토어를 구경했다. 너무 비싼 금액대로 아무것도 살 순

없었지만 깜찍한 캐릭터와 사진을 찍고 바로 옆에 있는 코카콜라 스토어에서도 많은 사진을 남겼다.

The Power of One

교양과 엄혁 교수

The number “one” is a powerful number. The significance of this number has a strong and powerful implication in modern day society. Some people fear this number and others strive to be it. But, why does modern society embrace this number?

Let’ s start at the beginning, when we were learning the number system. This is the first number we learn, and it is a number that is repeated so often, it is ingrained in our memory that even before we can speak, we all know &1& is a very important number. At a very early age,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value of 1 as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number. An example of a qualitative number. When we learn 1, we also learn 2 and 3. Already, we have learned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three numbers. One is better than two, two is better than three, and three is not as good as one and two. Also, as a quantitative number, we also learn 3 is more than 1 and 2. When we teach numbers to babies, not only are we teaching them how to count, we are also teaching them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se numbers. Therefore, at an early age, being number 1, or winner, is better than second or third. Children are very honest with their feelings, if they lose a game, they will start to cry until you praise them as the winner. To children, not being number 1 is totally devastating. On the contrary, having only one of something is not as good as having two or three. Therefore, children understand the concepts at a very early age.

It is my belief that at this early age, children learn to be competitive or cooperative based on this concept of the number one. Then this level of competitiveness or cooperation with others will last a lifetime. If we see students being really competitive when playing sports with their friends, then they value the qualitative value of one more than the quantitative value. However, if students are less competitive and more cooperative, then students value the quantitative one rather than the qualitative. Yet, as we grow and understand the nature and value of these different measurements of the number one, people tend to change their values. For example, a competitive child may be less competitive as an adult but this change had to be made consciously rather than subconsciously as a baby.

If you understand how we developed the value of one, now we can try to harness the idea of the power of one. The power of one is the idea of being a lone person, going against the majority, fighting the odds, and defying all logic because you believe you are doing the right thing. We see this ingrained in popular media. If you enjoy the movies,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power of one. Most action films, the plot is one man against an evil group of oppressors, standing up and fighting them, even if their team opposes them, the idea of David versus Goliath. Of course, the one man against all odds wins and proves they were right. We see this in James Bond in all his movies, Neo in the Matrix, John McClain in Die Hard, and the T-800, better known as the Terminator, in the Terminator Series. We see this in history: Admiral Yi Sun-sin, masterfully defeating the Japanese navy and protecting the country and the Korean people. Another history-changing individual was An Jung Geun. He shot and killed the Japanese first prime minister, Ito Hirobumi. These real historical individuals changed the course of Korean history. Of course, we cannot all be individual national heroes nor be an action star, far from it. We can, however, empower the idea of the power of one in our everyday lives.

How?

Imagine a classroom, where one person stands up against a teacher&s wish. In most cases, it is most likely the student that is wrong. But, what if it was the whole class that stood up, then the assumption is that the teacher is wrong. This idea and concept is the power of one. One is not the individual but the singular idea that people believe that changes ideas.

In a society, when a group of people believe in a singular idea, it becomes powerful, ready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In the last few years, we have seen two great examples. First is the former president of America, Donald Trump. When he ran for president, he did not believe he would be elected. There were a few people that really believed he would be president. This belief became bigger and bigger, and when election day came, he won by the slimmest of margins. This is the power of one. When a belief becomes bigger and more people start to believe, change will happen. For Trump, this belief became so big, as President, he thought he could do whatever he wanted. Now h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FBI. Nonetheless, so many Americans still believe in him, he may run again for President.

In Korea, we now have a president, Yoon Suk-Yeol, that has only 24% of the country’ s support. He has the lowest support for any active president in history. President Yoon is so concerned about his support level, he is actively running the country, not on political conviction but rather on increasing his public support. This is an example of the opposite of the power of one.

If by understanding the idea of one, a person, a small group, a large group, a country or society can change the direction of the world and its history. A leader harnesses this idea, a strong leader embraces this idea and a great leader acts on this idea. I hope you will take your power of one and use it to change the world.

하나의 힘

번역 강은정

숫자 “하나”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 사회는 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숫자 체계를 배울 때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숫자이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숫자로,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1”이 매우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는 1이라는 수의 중요성을,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숫자로 이해합니다. 질적인 숫자의 예를 보면, 우리는 1을 배울 때 2와 3도 배우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 세 숫자들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일은 이보다 좋고, 이는 삼보다 좋고, 삼은 일이나 이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적 수로서 3은 1과 2보다 많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기들에게 숫자를 가르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숫자들의 사회적 의미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에 1등이 되는 것은, 즉 승자가 되는 것은, 2등이나 3등보다 좋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합니다. 게임에서 지면 당신이 그들을 승자로 칭찬할 때까지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1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두세 가지를 갖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은 1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수준의 경쟁력이나 타인과의 협력은 평생 지속됩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스포츠를 할 때 정말 경쟁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양적 가치보다 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덜 경쟁적이고 더 협조적이라면 학생들은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숫자 1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측정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심이 강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는 덜 경쟁력이 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아기 때 무의식적으로 변하기 보다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one)의 가치를 발달시켰던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하나의 힘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혼자가 되어 다수에 맞서고, 역경에 맞서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논리를 무시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중 매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즐긴다면 영화의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액션 영화에서 줄거리는, 악한 억압자들의 집단에 맞서는 한 남자가 일어서서 (비록 그 팀이 그들을 억압하더라도) 그들과 싸우는 다윗 대 골리앗의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모든 역경에 맞서 한 사람이 승리하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매트릭스의 네오, 다이 하드의 존 매클레인, 그리고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터미네이터로 더 잘 알려진 T-800에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것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 일본 해군을 훌륭하게 무찌르고, 나라와 조선 국민을 수호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를 바꾼 인물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실존 인물들이 한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국가적 영웅이 될 수도 없고, 액션 스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교사의 뜻에 반대하는 교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반 전체가 일어섰다면 교사가 틀렸다는 가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개념은 하나의 힘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들을 바꾼다고 믿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믿을 때 그것은 강력해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두 가지 훌륭한 예를 보았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점점 커져갔고, 선거일이 되자 그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힘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럼프에게 이 믿음은 너무 커져서 대통령으로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는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한국의 지지율이 24%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현직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지지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힘의 반대되는 예입니다.

만약 하나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한 사람이나 작은 그룹, 큰 그룹, 한 나라나 사회가 세상이나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의 리더는 이런 생각을 활용하고, 더 강력한 리더는 이 생각을 포용하고, 더욱 위대한 리더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실 것을 바랍니다.

신안산대학교 top 6

글, 그림 : 정서윤

